

# 순천시, 원도심 ‘젊은이들의 해방구’로 탈바꿈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 일환  
입주기업 모집...28일까지 접수  
35개소·69실 마련, 5년간 입주  
19일 원도심 일일서 현장 안내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순천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시가 추진하는 3대 경제축 중 하나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시는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90억원을 투입,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 문화콘텐츠 기지를 조성하고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순천시 2025 콘텐츠 기업유치 설명회 모습. 순천시 제공

있다.

이번에 입주하게 될 기업은 원도심 내 빈 건물을 활용하게 된다. 시에서 입주공간 활용을 위해 원도심 내 빈 건물을 모집한 결과 총 35개소, 69실이 접수됐다.

입주대상은 문화산업법 제2조에 따른 문화콘텐츠 기업 중,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분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및 신규 창업 기업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건물

을 1~3순위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전문성, 기술성·개발능력, 성장 가능성 등 평가표에 따라 1차 실무심사 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을 매칭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입주기업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간 입주하게 되며,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무공간 조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 요율의 사용료 부과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시는 이전에 따른 기업유치보조금,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창·제작비 지원,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기업 수요인력 양성,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지원 등 연관 사업들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으로 원도심 일대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젊

은이들의 해방구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며 “마중물이 될 입주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상인연합회 역시 콘텐츠 기업 입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최두례 순천원도심상인연합회장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인, 건물주와 뜻을 모아 시민로차 없는 거리 조성, 반값 임대료 참여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입주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원도심 일일서 현장 안내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순천시 콘텐츠정책과로 전자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 가구당 최대 월 10만원 지원

순천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기준 가구당 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바우처 카드는 순천로컬푸드, 농협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시, GS25, CU, 농

협물,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품목인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온라인 신청, 대표번호(1551-0857) ARS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최소 인원 기준 폐지

순천시는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여행사 및 개별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규모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최소 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홀로 여행객’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 10인 이상 관광객 지원 기준은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지

원하고 있다.

개별 관광객은 1박에 1만원씩 지원하고, 단체 10인 이상 관광객은 관광지 2개소 방문 시 1박에 1만원씩, 3개소 방문 시 1박에 2만원씩 최대 3박까지 차등 지원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관광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의 경우에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천로봇교육과학이 다양한 로봇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첨단 로봇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로봇교육과학관은 돌봄로봇관, 협동로봇관, 무인편의점관, 기타체험관과 교육실로 구성됐으며 각 전시관에서는 특화된 로봇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돌봄로봇관에서는 알파미니(순봇), 보미, 모모 등 다양한 로봇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협동로봇관에서는 로봇이 실시간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의 몸동작과 음성을 인식해 작동하는 체험을 통해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타체험관에서는 로봇이 열

굴을 그려주고, 가상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무인편의점관에서는 로봇이 만든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로봇코딩(선암사를 탐장하자)’, 22일에는 ‘로봇조작(선암사를 사수하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현재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3월 교육프로그램은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누리집(https://scrobot.kr/)을 통해 QR코드로 접수할 수 있다. 체험 및 교육 문의는 순천로봇교육과학관(061-726-5777, 5778)으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인 ‘멍냥시민학교’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반려동물문화센터 ‘멍냥시민학교’ 내달 개강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인 ‘멍냥시민학교’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멍냥시민학교는 반려동물의 사회화·예절 교육부터 독스포츠, 행동 교정까지 반려견의 정서적·신체적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1학기(3~5월), 2학기(6~8월), 3학기(10~12월) 등 3학기제로 운영된다.

1학기 정규강좌는 반려견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스마트독 훈련교실’, 반려견과 스포츠활동을 통해 교감하는 ‘어질리티 기조반’, ‘독피트니스’, ‘퍼피트레이닝’, ‘펫경험마사지’가 있다.

또 일일 특강으로 ‘수제간식 만들기’, ‘생활미용 배우기’ 등 생활밀착 프로그램과 공공진료소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건강상담 Q&A’ 강좌도 개설해 반려인과 반려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강좌는 이날부터 ‘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 누리집(scanimal.kr)’과 반려동물문화센터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 및 예비 반려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과 주요 전염병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동물자원과(061-749-876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 ‘민생경제 회복’ 체감형 지원책 강화

### 지역상품권 1500억원 발행 영세 음식점업 30만원 지원

순천시가 경기침체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해 이달까지 진행되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총 50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으며 시는 추가로 내년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총 8억4000만원을 투입, 공공요금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첫 주에만 9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순천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오는 24일부터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전액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금리 연 5%를 보전해 주는 이

자 지원 사업과 병행해 진행된다.

또 1인 자영업자에게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연간 비용의 최대 20%를 환급(월평균 1만1700원) 지원한다.

이 외에도 노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강화, 디지털 기기 설치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